

요약

중국 정부는 2025년 12월, '국가급여의약품목록' 개정과 동시에 '민영건강보험 혁신약물 보장목록'을 도입하여 공공-민간 연계형 의약품 보장체계를 구축함. 공공보험에는 114개 혁신 치료제가, 민영보험에는 공공 보장이 어려운 초고가 치료제 19종이 포함됨. 다만, 해당 조치가 민영보험 상품 설계와 병원의 보장 채택을 통해 제약사·보험회사·환자 모두의 실질적 효용 증가로 이어질지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 중국 정부는 2025년 12월, 기존 공공 의료보험인 국가급여의약품목록(National Reimbursement Drug List, 이하 'NRDL') 개정과 동시에 「민영건강보험 혁신약물 보장목록(Commercial Health Insurance Innovative Drug List)」을 공표하며 공공과 민간의 통합 의약품 보장체계를 마련함)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는 국가 재정 기반의 NRDL과 민영보험의 보장 범위를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고가 혁신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가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임
 - 민영건강보험 혁신약물 보장목록은 법적 의무가 아닌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으로, 실제 보장 여부는 민영보험 회사가 개별 상품 설계를 통해 선택적으로 결정함
 - 정부가 민영보험에서 보장 가능한 의약품 목록을 직접 편성·관리함으로써, 그간 공공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가 어려웠던 초고가 혁신 신약 및 희귀질환 치료제를 제도권 관리 범위로 편입하고, 민영보험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중국 국가의료보장국(NHSA)은 2025년 12월 NRDL 개정안을 통해 50종의 1등급(Class 1) 혁신 치료제를 포함하여 총 114개 약물을 신규 등재함²⁾
 - 신규 등재와 더불어, 임상적 유용성이 낮거나 대체 치료제가 존재하는 29개 품목을 제외한 결과 NRDL에 포함된 전체 의약품 수는 총 3,253종(양약 1,857종, 중성약³⁾ 1,396종)으로 확대됨
 - 약물에 대한 급여목록 정비를 통해 종양(항암), 만성 질환, 정신 질환, 희귀 질환 및 소아용 의약품 등 5대 주요 핵심 분야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 과거와 달리 이번 발표에서는 신규 등재 약물의 평균 가격 인하율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는 급여 관리의 초점을 임상적 가치와 혁신성 중심으로 이동시키려는 정책적 전환으로 해석하는 연구도 있음⁴⁾

1)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25. 12. 9.), "China Makes New, Innovative Drugs More Accessible, Affordable"

2)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25. 12. 7.), "China Updates National Medical Insurance Catalog, Adds 114 New Drugs"

3) 중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약재를 가공 정제하여 알약, 캡슐, 액제 등 일정한 제형으로 규격화한 완제의약품으로. 중국 의료보험 체계에서 양약과 함께 공식 의약품의 한 축을 담당함

4) Pharmaceutical Technology(2025. 1. 2.), "China Releases 2025 NRDL and First Commercial Insurance Drug List"

○ 한편, '민영건강보험 혁신약물 보장목록'에는 공공보험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초고가 혁신 치료제가 포함됨

- 해당 목록에는 총 19개 약품이 포함되었으며, ① 높은 혁신성, ② 명확한 임상적 가치, ③ 공공 보험 적용이 어려운 고가 치료제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품목이 포함됨
 - 19개 품목 중 14개는 항암제이며, 특히 1회 투여 비용이 100만 위안(약 1.9억 원)을 상회하는 CAR-T 세포 치료제 5종을 비롯해 알츠하이머 치료제 등이 포함됨
- 일라이 릴리, 화이자 등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의 혁신 치료제가 다수 포함됨에 따라, 중국 시장 내 신약 접근성과 혁신 치료제의 제도적 수용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됨⁵⁾
 - 혁신 치료제에 대한 예측 가능한 보장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제약사의 연구개발(R&D) 투자 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실제로 일라이 릴리 등 주요 다국적 제약사들은 중국을 핵심 시장으로 지목하며 현지 투자 확대 의지를 표명함⁶⁾
- 중국 정부는 이번 19개 품목을 시작으로, 향후 민영보험 시장의 반응과 상하이·선전 등 일부 지방정부의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보장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설정하고 있음

〈표 1〉 중국 의약품 보장체계 개편 요약

구분	공공 의료보험 (NRDL 2025 개정)	민영건강보험 혁신약물 보장목록
정책 주체	국가의료보장국(NHSA)	국가 차원 가이드라인 + 지방정부·민영보험
신규 등재 약물 수	114개 약물	19개 약물
등재 약물 총 규모	3,253종(양약 1,857종, 중성약 1,396종)	신설
주요 특징	Class 1 혁신치료제 50종 포함	초고가·초고혁신 약물만 엄선
제외 품목	임상 유용성 낮은 29개 품목 제외	-
중점 분야	항암, 만성질환, 정신질환, 희귀질환, 소아용 의약품	항암 중심, 희귀·중증 질환
고가 혁신 약물 포함 여부	제한적	적극 포함
향후 정책	보장 범위 질적 고도화	민영보험·지방정부 성과 따라 단계적 확대

자료: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25. 12. 9.), "China Makes New, Innovative Drugs More Accessible, Affordable";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25. 12. 7.), "China Updates National Medical Insurance Catalog, Adds 114 New Drugs"; Bloomberg(2025. 12. 7.), "Lilly, Pfizer Land on China's First Private Insurance List"; Pharmaceutical Technology(2025. 1. 2.), "China Releases 2025 NRDL and First Commercial Insurance Drug List"를 참고하여 저자가 정리함

○ 이번 민영보험 보장목록 확대조치는 향후 민영보험 상품 설계, 병원의 보장목록 채택 여부 및 환자 수요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제약사·보험회사·환자 모두의 효용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⁷⁾

- '민영건강보험 혁신약물 보장목록'은 권고 목록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공보험 급여를 의미하는 NRDL과 달리 등재 자체만으로 보장이 자동 확대되거나 병원의 선택이 단기간에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음⁸⁾

5) Bloomberg(2025. 12. 7.), "Lilly, Pfizer Land on China's First Private Insurance List"

6) Pharmaceutical Technology(2025. 1. 2.), "China Releases 2025 NRDL and First Commercial Insurance Drug List"

7) CMS Legal(2026. 1. 9.), "China has Renewed the National Reimbursement Drug List and Released the First Commercial Reimbursement List for Innovative Drugs"

8) Xinhua(2025. 12. 10.), "China Focus: Expensive Life-saving Drugs Brought Closer to Chinese Patients"